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년 겨울 | 16호

특집 범종 | 박물관 탐방 직지사 성보박물관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떡보와 사신

전시실 산책 나무는 언제 보아도 즐겁다 | 유물사랑 同鄕의 금동불

답사기 경주에서 만난 나의 부처님 / 아름다운 두번째 만남

가증유물 나눔에 대한 소중한 추억 | 강의를 들으며 박물관과 함께 한 세월

회원에게 사라져 가는 것은 아름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 종소리

朴南秀

나는 떠난다 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忍從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후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天上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흠뻑이 된다.

## 천년의 시간, 천년의 소리

새벽녘 산사에서 울리는 범종소리. 그 웅장함을 시작으로 하늘과 땅이 깨어나고 은은한 여운을 남기며 사방으로 퍼져간다. 영롱하고 맑은 소리는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어 숨조차 멈추게 한다. 소리를 따라 다가서면 아름다운 형상에 또 한번 감탄하게 된다. 마치 향아리를 엮어놓은 것 같은 몸체엔 연꽃·당초무늬가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고, 잠에서 깨어난 비천이 天衣를 날리며 환상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다. 종고리에 오른 한 마리 용은 입을 크게 벌려 종을 물어 올릴 태세이다.

梵鐘이란 불교에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소리를 내는 梵音具 중 하나로, 종루에 걸어놓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의 일종이다. 성덕대왕 신종의 명문에는 범종 소리가 부처의 말씀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종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圓音에 귀 기울여 구도심을 잃지 않고 깨달음의 길에 오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범종의 기원에는 몇 가지 설이 있으나 중국 殷代 이후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古銅器의 일종인 勇鐘이나 鐸에서 발전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우리나라 범종의 등장 시기는 『삼국유사』 ‘天壽 6년에 …… 법당을 세우고 범종을 달았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신라 진흥왕 26년에 해당하며 6세기 중엽부터 이미 범종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신라 이전에는 종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고구려 벽화고

분군 중 안악3호분(4세기 중엽)의 행렬도에는 두 사람씩 종과 북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범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고동기 樂鐘이 한반도에도 사용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또한 황룡사지·미륵사지 등에서 출토된 風鐸形 소종들은 7세기 작품으로 보이는데, 종의 몸체가 신라종과 닮아 삼국시대 범종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종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종신의 형태는 윗부분이 좁고 종복으로 가면서 불룩해지다가 종구 쪽이 좁아지는 역항아리형이다. 한국범종의 독창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곳은 용뉴로서 단용과 음통으로 구성된다. 『文選』에 용을 종에 장식하는 재미있는 이유로 ‘고래를 무서워하는 蒲牢라는 용이 울기를 좋아해서’ 라고 했다. 훌륭한 종소리를 얻기 위하여 목청 좋은 포뢰로 종고리를 만들고 고래 형상을 깎아 撞





棒으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종신에는 연꽃봉오리 형태로 돌출된 9개의 蓮蕾와 그 장식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4개의 蓮廓이 상대에 붙어 배치된다. 당좌와 당좌 사이의 앞뒤 면에 주악상이나 비천상이 대칭으로 조각되어 있다. 고려, 조선시대로 가면서 불상이나 보살상으로 변하지만 신라종에는 오직 비천상만을 장식한다. 조선시대의 용뉴는 중국종의 영향을 받아 쌍룡으로 나타나며 음통은 거의 사라진다. 한국종의 전형은 신라시대에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명 에밀레종이라 부르는 성덕대왕신종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인 상원사동종(725년)이 있다. 우리종과 유사한 중국과 일본종은 형식상 특징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같은 조형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종은 나팔형, 일본종은 逆U자형이다. 일본과 중국종은 모두 쌍룡으

로 배치되어 있으며 음통은 없다. 전체적인 문양이 단순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종만의 독특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외형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音筒인데 甬筒, 音管이라고도 한다. 원통이 솟은 형태이며 종의 꼭대기에 용뉴와 함께 어우러져 천판 위에 장식되었다. 속은 비어 있으며, 하부 쪽이 종의 몸체 내부에 관통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다. 관통된 음관을 장치하여 구조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 또 음통이 천판과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의 하중이 전체적인 균형의 상실을 가져올 것임에도 무리하게 설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음통이 종신의 내부와 관통된 것으로 볼 때, 울림소리와 관련된 음향조절장치의 역할을 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근래에 성덕대왕신종의 음통을 막고 쳤을 때와 떼고 쳤을 때 공명의 효과 면에서 별 상관이 없다는 실험결과가 나온 바 있다. 종소리는 몸체의 진동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종을 치고 난 후 음통을 만져보면 진동을 거의 느낄 수 없다한다. 하지만 구조 과정이 까다로운 작업임에도 아무 의미 없이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리라. 어쩌면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그 의문점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음통에 관한 다른 견해로, 기능보다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萬派息笛’ 설화에 연관시켜,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리고 화평하게 하며 모든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 만파식적의 상징으로 본다. 그 이유는 만파식적이 대나무로 만들어져 형세가 둥근 원통형이며 마디가 있다는 것이다. 신라종의 모습을 설화 내용 중 ‘동해의 용이 대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바다에서 육지로 힘차게 기어 나오는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상원사종이나 성덕대왕신종의 음통 모습은 대나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좀더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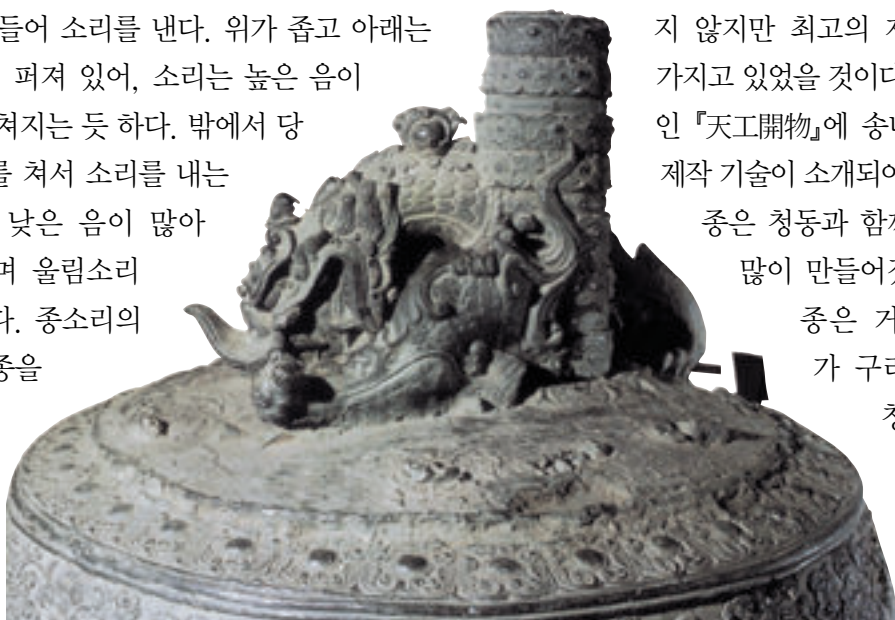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릴 만큼 장중하고 청아한 소리. 종소리는 크고 오래 지속될수록 좋으며 울림이 있어야 한다. 서양종은 안에 추를 매달고 몸을 흔들며 소리를 낸다. 위가 좁고 아래는 나팔꽃처럼 퍼져 있어, 소리는 높은 음이 많고 팍 펼쳐지는 듯 하다. 밖에서 당우리종은, 낮은 음이 많아 여운이 길며 울림소리가 웅장하다. 종소리의 울림이란 종을 한 번만 쳐도 ‘웅~웅~’ 하

고 되풀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맥놀이라 한다. 끊어질 듯 하면서 되살아나 이어지는 맥놀이는 한국종 소리의 특성이다. 맥놀이의 주요인은 몸체 두께의 불균형으로 보여지며, 미약하나 당좌 위치의 영향도 있다. 몸체의 두께가 같은 서양종이나 고대 일본종 소리에서도 모두 울림이 없다고 한다. 우리종은 세부적인 장식이 정교하고 울림소리가 웅장하여 동양 삼국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Korean Bell’이라는 학명을 가질 만큼 독특함을 인정받고 있다. 독창성과 아름다운 조형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비록 종을 만드는 기술은 전해지지 않지만 최고의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문헌인 『天工開物』에 송나라 범종의 제작 기술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 종은 청동과 함께 철제로도 많이 만들어졌으나 한국 종은 거의 주재료가 구리와 주석인 청동이다.


전통주  
조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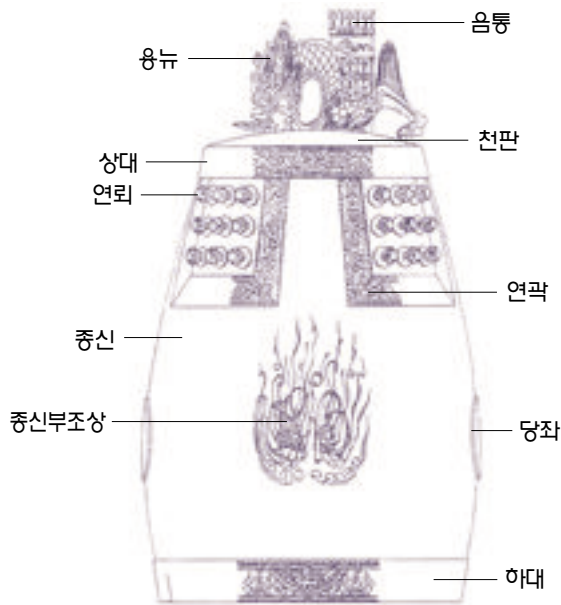


밀랍주물법은 대부분의 한국종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 종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흙벽돌을 쌓은 다음 여기에 고령토, 점토를 혼합하여 덧붙인다. 회전판을 돌려가며 종의 형태로 만든 후 표면을 손질하고 물에 갠 흑연가루로 마무리한다. 다음으로는 밀랍과 소기름을 혼합한 밀초를 사용하여 종의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주물사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밀랍 표면에 바른다. 건조 후 가열하여 밀랍이 녹아 빠지면 주형이 완성된다. 이렇게 제작된 거푸집에 쇠물을 부으면 완료된다. 다른 공법으로 철제종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沙型鑄物法이 있다. 외형에 문양을 찍어 새기기 때문에 정교하게 묘사하기 어려우며 종의 표면에 굴곡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한다.

성덕대왕신종의 몸체에 나타나 있는 문양의 선명한 굴곡과 부드러움은 밀랍법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힘들다고 한다. 높이가 3.75m이고, 종신의 두께는 밑쪽이 20cm 정도이며 위로 올라가면서 5~10cm 정도로 얇아진다. 이 종을 제작하려고 銅을 12만 근이나 모았다는데 실제 무게도 18.9톤에 달한다. 거대한 기증기나 대형 용광로도 없는 당시 조건으로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큰 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또 이만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밀초가 필요하다 한다. 1년에 벌통 한 개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적어서 많은 시간을 모아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준비에서 완성까지 20여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범종 하나를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혼이 쏟아 부어졌을까. 특히 신라종의 섬세한 문양과 맑고 깊은 울림소리는 우리를 천년의 시간 속으로 빨아들인다.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 종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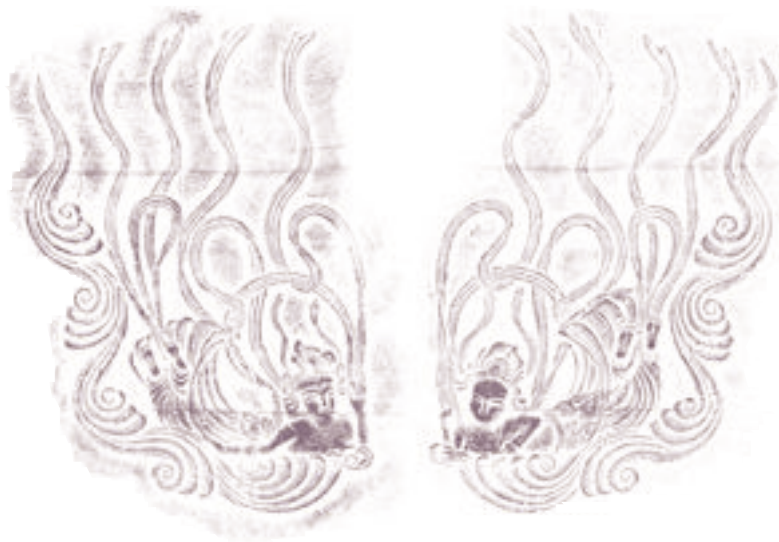
## 비울수록 크게 울리니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밖에 포함되어 보아서는 능히 그 근원을 보지 못하며, 大音은 천지 사이에 진동하여 들어서는 능히 그 울림을 듣지 못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지극히 깊은 진리를 우리 중생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본보기로 神鐘을 높이 달았으니……. 모든 중생이 지혜의 바다에서 함께 물결을 타고 속세를 벗어나 깨달음의 길에 오르게 하소서……”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글이다. 인간은 늘 땅을 딛고 살면서도 머리는 하늘을 이고 우러르는 존재다. 그래서 인가 닿을 수 없는 하늘을 동경하여 만들어내는 소리만이라도 그 곳에 닿기를 바란다. 천지를 울리고 싶은 것이다.

소리 만큼 우리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감각은 드물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듣고 싶다고 들을 수도 또 안들을 수도 없는 수동적 감각이다. 천지간을 벗어나지 않는 한 누구도 소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고루 들리니 평등하고 보편적이어서 공감을 일으키기 쉽다. 같이 듣고 같이 울며 웃는다. 우리를 한 번에 묶는 힘은 소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소리는 비어있어야 울린다.

모든 악기의 속이 그렇듯 잘 비워야 울린다. 신종에는 ‘그 모양이 산과 같이 우뚝하고 소리는 용의 울음과 같다’고 새겼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용의 울음. 그 울음은 크고 멀리 들리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비어있지만 가득 찬 듯 묵직해야 한다. 둔탁하게 부딪치고 마는 소리



가 아니라 길게 여운이 남아야 한다. 깊이 들이 마시는 한 번의 숨처럼 몸을 휘돌아서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남김없이 떨리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종의 우는 소리다. 모든 강렬한 종교 체험이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하듯 불교에서도 종을 사용했다. 종소리는 어둠과 혼돈을 깨우는 소리며, 사람이 만들어낸 하늘의 소리다. 크고 웅장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정갈하게 한다. 한밤 중 산사에서 四溟大師는 이렇게 읊었다.

속 비고 걸 두터워 모양은 둥글고 곧아  
치는 대로 소리 낸 세월 그 얼마이던가  
꿈결에 들을 때 호랑이 포효더니  
깨어서 다시 들으니 용의 울음이 분명하네  
일찍이 靈隱寺 황혼녘에 울리더니  
나중엔 寒山寺 한밤의 소리였네  
그 소리 들은 사람 몇이나 깨쳤는가  
지금껏 바람 일어 그윽한 숲 흐드네

한국 종이 찬탄을 받는 이유는 소리 못지않게 모습이 빼어나다는 데 있다. 전체적인 향아리 모양이 단정하며 윗부분의 용이 살아있고 몸통의 문양은 정교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가운데는 주로 주악비천상이나 보살상을 배치하고 종을 치는 자리인 당좌는 연갑을 중심으로 연잎을 새겨 한 송이 연꽃처럼 나타냈다. 연곽과 상대하대도 띠처럼 만들어 안에는 연꽃무늬와 당초무늬로 장식했으니 종소리에는 분명 연꽃 만나

고 가는 바람의 향기도 실려 있을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종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것은 오래된 순서와 일치해서, 통일신라의 전성기인 8-9세기에 만들어진 종들이다. 상원사종과 성덕대왕신종이 그렇다

맑은 소리가 백리 밖까지 들렸다는 상원사종은 그 문양의 아름다움이 단연 첫손에 꼽힌다. 가운데 새겨진 한 쌍의 비천은 아직도 보는 이의 눈을 잃게 한다. 생황과 공후를 연주하며 얹





은 옷자락을 리본처럼 하늘로 날리고 있는데, 얼굴의 볼은 볼록하여 사과 같고 악기에 살짝 올린 긴 손은 가냘프다. 어느 얼굴과 자태가 이렇듯 고울까. 서양의 비너스가 지상의 미를 대표한다면 상원사종의 비천은 천상의 미를 보여준다. 무겁게 턱 버터 선 비너스가 아니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여리다. 그러면서도 육중한 청동에 새겨져서인지 쉽게 사라질 듯 허망하지 않고 안으로 여문 힘이 느껴진다.



종이도 비단도 아닌 어른 키 높이의 청동에 이렇듯 가볍고 보드랍게 비천을 새긴 감각이 눈부시기만 하다.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은 악기 대신 향로를 받쳐 들고 연꽃무늬 방석위에 살짝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위로는 영락과 옷자락이 물결처럼 날리고 주위엔 보상화가 구름처럼 피어 있다. 한번 종을 치면 꽃향기가 온 천지에 퍼질 것 같다. 산처럼 우람한 자태의 신종은 서라벌 너른 별판을 울린다. 그 소리에 깨달음을 얻어 비천에 가까이 가면 그곳은 이미 어둠에서 벗어나 꽃비가 내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환한 세상이라.

신종의 소리는 녹음된 것 말고는 지금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우뚝한 자태는 중앙박물관에 전시된 탁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대개 규모가 크면 허술한 구석이 있을 법도 한데 신종은 위부터 아래까지 어느 곳 하나 소홀하게 지나친 곳이 없다. 가운데의 비천을 비롯해서 어깨부터 하대까지 연꽃과 휘돌아나가는 당초무늬로 장식되어 화려하다. 여러 가지 색을 쓴 것도 아닌데 탁본을 보면 먹빛 한 가지만으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름다움에 취하게 한다.

깨달음이란 이런 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큰 소리가 온 몸을 울려 비처럼 쏟아지는 희열에 잠기게 만드는 것. 신종 앞에 서서 옛사람들이 들었던 용의 울음을 듣는다. **진**



# 직지사 성보박물관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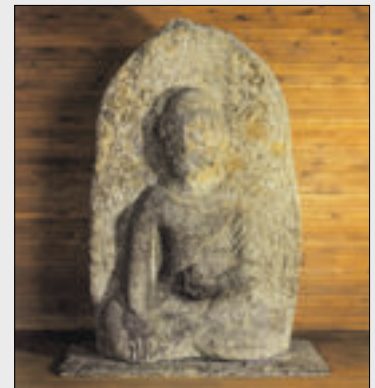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첫날, 붉게 물들어가는 산사 속 유물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初行에다 갈 길도 멀었지만, 박물관 탐방으로 떠나는 가을나들이는 우리들 마음속에 형형색색의 가을 풍경화를 그리게 했다. 늘 봐왔던 산야인데 새삼 그리 더 곱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흥조 먼 소녀 같은 일행들, 마음이 차를 앞질러 박물관에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

直指聖寶博物館은 경북 김천 直指寺 안에 위치해 있다. 직지사를 중심으로 김천, 상주, 구미, 문경, 예천 등지의 여러 절에서 전해오는 불교문화재를 이곳에서 보관·전시·연구한다. 聖寶란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성스러운 보물을 뜻한다. 성보박물관은 사찰문화재의 정수가 제자리를 떠나 이곳에 모셔졌기에, 사찰을 방문할 때 꼭 들려보아야 할 곳이다.

박물관은 고운 단청을 드리운 단아한 모습으로, 현판에 '淸風寮'라 적혀있다. 따로 박물관을 신축하지 않고, 원래 스님들이 공부하던 목조건물을 개축하여 1996년 개관하였다. 박물관으로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박함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기능면에서야 제대로 마련된 새 건물이 훨씬 필요하겠으나, 청풍료는 불교유물에 담긴 의미를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서면 ㄴ자 구조로 벽면을 따라 유물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 한 가운데 桃李寺 金銅六角舍利函[국보

제208호]이 금빛 찬란한 도도함을 발한다. 지붕 모서리의 조형과 양증스러운 장식고리, 그리고 탑신 육면에 제석천, 범천, 사천왕을 섬세하게 새겨 놓은 기법에서 국보다운 면모가 엿보인다. 세 개의 자물쇠가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자물쇠가 이리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비쳐질까? 寒天寺出土 金銅자물쇠[보물 제1141호]로 고려시대 것이다. 비록 금빛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 모양새와 연꽃·넝쿨무늬로 예술적 멋을 한껏 부려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만든 솜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金龍寺 思印比丘鑄成銅鐘[보물 제11-2호]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지만, 한 마리 용두와 연꽃으로 장식한 음통



에서 신라종의 특징을 하고 있다. 직지사 石造藥師如來坐像[보물 제319호]은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얼굴부분이 특히 심하게 마모되었다. 아픔을 치유해주는 약사여래이며 전체적인 얼굴윤곽으로 볼 때 아마도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지는 않았을까.


박물관에서는 매년 특정주제를 가지고 상설전시회를 한다. 올해는 천도의식과 명부전을 주제로 의식용 불화와 불교의식 용구가 전시되었다. 鐵製銀入絲香爐는 조선시대 태감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대웅전 후불탱과 함께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향로 안에 깊은 신앙심과 직지사의 역사가 담겨있는 듯 하다. 水多寺 木造童子·童女立像은 명부전에 있던 것으로 색채가 선명하며 모습이 다양했다. 그 중 사자를 들고 있는 동자상은 재미난 모습으로 보는 이에게 웃음을 준다. 직지사 목조해태법고대 역시 해학적 얼굴표정으로 친밀하게 다가왔다.

가을 운치가 가득한 박물관 마당에도 다양한 유물들이 놓여 있다. 물고기와 자라 등이 조각된 우물벽과 정종 태실 난간석, 낚시루 등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감상해 볼 수 있다. 뒷마당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직지사청풍료앞삼층석탑[보물 제1186호]을 볼 수 있는데, 상륜부분이 소실되어 새로 복원된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직지성보박물관은 특히 탁본으로 유명하다. 관장 홍선스님은 탁본기술이 뛰어나며 소장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성보박물관이라는 특성상 규모와 지원 면에서 여느 일반박물관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오히려 박물관을 특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관장 홍선스님은 “금석문은 인문, 역사 등 여러 학문의 기초인데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지 못한 것을 알고는 탁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인연을 이야기하였다. 우선 불교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 우리나라 전체 금석문 자료를 집성해서 제대로 판독,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한 탁본 자체만으로도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예술품이다. 그러나 전시를 위해 표구를 할 경우 입체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못내 아쉬워하였다. 이러한 정성과 열정의 결과로 ‘한국의 범종탁본전’과 같은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올 여름 몽골에서 암각화와 사슴돌, 비문에 대한 탁본작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전시도 열릴 예정이다.

눈으로 마음으로 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짧은 가을에는 어느새 넘어가고 우리들 귀가를 재촉하는 듯했다. 성스러운 보물, 그것은 남아있는 유물의 형태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과 정성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 떡보와 사신

柳 夢 寅(1559-1623)  
조선 중기의 문신

옛날 중국 조사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곳이 禮義之邦이니 반드시 異人이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행차가 평양에 이르렀을 때, 조사가 길가에 있는 한 장부를 보니 키는 팔구 척에 긴 수염이 허리까지 드리웠는지라 자못 기이하게 여겼다. 조사는 그와 한마디 나누어 보고자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을 들어 손가락을 둥그렇게 만들어 보이자 장부 또한 손을 들어 손가락을 네모지게 만들어 보였다. 조사가 이번에는 세 손가락을 구부려 보이자 장부는 즉시 다섯 손가락을 구부려 답하였다. 조사가 또 옷을 들어 보이자 장부는 곧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켜 보이며 응대하였다.

조사가 서울에 이르러 館伴使에게 말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귀국이 예의지방이라고 들었는데, 참으로 빈말이 아니었소.”

관반사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조사가 말했다.

“내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 있는 한 장부를 보았는데, 풍채가 매우 장대하여서 나는 그의 심중이 반드시 남다르리라는 것을 알았소. 이에 내가 손가락을 둥그렇게 만들어 보였는데, 이는 하늘이 둥글다는 것을 말함이었소. 그러자 장부는 손가락을 네모지게 만들어 응대하였으니, 그것은 땅이 네모지다는 것을 뜻한 것이요. 또 내가 세 손가락을 구부린 것은 三綱을 이룬 것인데, 장부는 다섯 손가락을 구부렸으니 이는 五常을 뜻한 것이었소. 내가 옷을 들어 보인 것은 옛날에는 옷을 드리우고 가만히 앉아서도 德으로 천하가 잘 다스려졌음을 말한 것인데, 장부는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답했소. 이는 末世에는 口舌로써 천하를 다스림을 뜻한 것이요. 길가의 천한 사내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학식이 있는 사대부야 더 말할 것이 있겠소?”

관반사는 이를 기이하게 여겨 평양으로 공문을 띄워 장부를 불러 역말에 태우고 급히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그에게 재물을 후하게 내리고서 물었다.

“天使께서 손가락을 둥그렇게 하였을 때 자네는 어찌서 손가락을 네모지게 만들었는가?”



장부가 대답하였다.

“그 분은 동근 절편을 드시고 싶었기에 손가락을 둥글게 만든 것이고, 저는 인절미가 먹고 싶었기에 손가락을 네모지게 만들었던 것이옵니다.”

“천사께서 세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자네는 어찌해서 다섯 손가락을 구부렸는가?”

“그 분은 하루 세 끼니를 드시고자하여 세 손가락을 구부렸던 것이고, 저는 하루 다섯 끼니를 먹고 싶어 다섯 손가락을 구부렸던 것이옵니다.”

“천사께서 옷을 들어보였을 때, 자네는 어찌해서 입을 가리켰는가?”

“그 분이 근심하는 바는 옷 입는 일이었기에 옷을 들어 보이셨던 것이고, 제가 근심하는 바는 먹는 것이기에 입을 가리켰던 것이옵니다.”

조정에서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었으나, 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奇男子로만 여기고 그를 공경하며 예를 갖추어 대했다.

아! 조사가 수염 긴 장부를 공경한 것이 어찌 한갓 겉모습만 보고 실수한 것이라. 우리나라가 예의지방이라는 명성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이 어찌 만세의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 ㄹ

〈於于野談〉중에서

# 나무는 언제 보아도 즐겁다

하 영 남 | 회원

몸이 마음의 속도를 따라야 할 때가 있다. 긴장이 사라진 발걸음은 물 흐르듯 가벼워진다. 마음이 문을 여니 숲과 나무, 하늘과 바람의 얘기가 들려온다. 올 가을, 국립중앙박물관을 떠돈 내 발길이 그리 옹골졌다. 기획특별전 〈秋史 김정희 學藝 일치의 경지〉와 〈루브르박물관展: 16세기~19세기 서양 회화 속의 풍경〉에서 동서양 그림 속을 소요자적했다.

전시일정으로 보면 추사가 먼저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한도〉를 가슴에 품고 자꾸 변방을 기웃거렸다. 어쩌다 그만 루브르가 추사를 앞지르고 말았다. 몇 년 전 파리에서 보낸 그날의 악몽만 잠시 누르면 두려울 것은 없었다. 찌는 더위, 화려한 로코코풍의 그림과 聖畵, 복도까지 넘쳐났던 대리석 조각들, 끝없이 이어진 미로 같은 전시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더 피곤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선 이번 전시회에서 나는 호적수를 만났다.

잘 기획된 전시회가 얼마만큼 빛을 발하는지! 그 일목요연함 앞에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신성한 숲, 황금시대, 고전주의적 이상, 환상과 숭고함, 예술의 어머니, 사냥과 전쟁, 초상화, 자연고유의 미학 등 여덟 개의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든든한 길잡이를 앞세우고 탐험에 나서는 기분이다. 그림속의 풍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연을 해석하는 화가들의 변화를 읽는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풍경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開眼이다. 마음이 눈을 뜨자 몸이 즐겁다.



니콜라 푸생, 〈성가족이 있는 풍경〉

신화적 주제를 가진 그림은 일종의 상상화이다. 언뜻 보면 완벽한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화가의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이상적인 풍경이기 때문이다. 니콜라 푸생의 〈성가족이 있는 풍경〉을 보라.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양광을

충분히 받은 산하, 아름답리 나무 아래 행복한 표정의 가족이 앉아 있다. 역삼각형의 안정된 구도와 밝은 색채 덕분에 더 없이 평화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뜯어보면 나무는 세밀화처럼 섬세하고 하늘은 지극히 단순하다. 소위 ‘고전주의’ 풍경화는 적당히 낭만적이긴 하나 浮遊하는 느낌을 준다. 동화책 속 삽화 같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화가들이 풍경을 표현하는 기법상 변화가 일어난다. 여전히 사실묘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장 밥티스트 카미유 코로, <티볼리의 빌라 테라스의 정원>

화면 속 인물은 점차 작아진다. 배경 한 칸에 화가의 정신적 지주인 조각이나 건물이 숨겨지기도 하고 ‘영혼이 사는 장소’라고 해서 폐허가 등장하는 시대도 있다. 자크 드 라주, 루이 조제프 르 로랭은 상상속의 완벽한 자연을 재현시키느라 20세기 이후의 초현실주의자 같은 작품을 남겼다. 우리 그림 속의 중국 산수처럼 서양화에는 이탈리아 풍광이 자주 등장한다. 마음의 고향인 셈이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이탈리아 여행이 유행하면서 풍경이 회화의 주제로 부각된다.

한 소년이 <티볼리의 빌라 테라스의 정원>을 등지고 앉아 있다. 고만고만한 정원수들 사이로 우뚝 솟은 짙은 녹색의 나무 몇 그루, 작은 창을 가진 집들, 구불구불한 숲이 이어지고 멀리 완만한 산 구릉, 그 위로 무심한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 이전의 풍경화와 비교하여 소재나 구도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런데도 묘한 생동감을 준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린 듯이 그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녹색과 회색과 베이지 색, 튀는 색 하나 없이 섬세한 명암만으로 정취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풍경도 인물도 작위적이지 않다. 이 경치를 가슴에 담은 장 밥티스트 카미유 코로의 감정이 파스한 햇볕처럼 녹아 있다. 내가 테라스에서 있는 착각이 든다. 키 큰 나무 위에, 소년의 등에 덧칠한 흰빛 점이 다가올 인상파를 예견하는 듯하다.

피에르 앙리 드 발랑시엔의 작품들은 사뭇 정적이고 또한 시적이다. 집과 나무 그리고 하늘, 간결하고 단순하다.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한 하늘 때문일까. 동양화에서나 느낄법 한 여백의 미가 엿보이기도 한다. 나란히 걸린 세 점의 작품 앞에서 나는 오래 서성였다. 묘한 既視感이 발길을 붙잡았다. 간 적은 없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들, 꿈에서였을까? 아니면 전생의 어느 날이었을까. ‘자연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되 느낌이 살아있는 현대적인 화법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전시회의 압권은 윌리엄 터너의 풍경화이다. <멀리 만이 보이는 강가의 풍경>이란 제목이 붙어 있지만 거의 형체가 없다. 풍경을 어떤 사물의 형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으로 풀어놓은 듯하다. 하늘과 물과 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열기나 습기 같은 것, 아지랑이 속처럼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분위기를 전달하기에는 더없이 좋아 보인다. 시대를 앞당겨 파격적인 터치로 풍경을 완성한 추상미술에 가까운 화풍이다. 주로 그림의 배경으로 무언가를 서술하는 역할을 맡았던 자연이 독립적인 모티브가 되고 드디어 형체마저 허물어 버린다. 그 정점에 터너가 있었다. 관점의 변화가 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품고 열린 마당으로 걸어 나온다. 푸른 하늘 어디에 저런 매서운 기운이 숨어 있었을까 싶게 바람이 차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더 날카로운 법인가. 옷깃을 여미고 추사를 만나러 간다. 너무 유명해서 오래 에둘렀지만 <歲寒圖>는 역시 겨울에 보아야 제 맛일 것 같다.

자자한 명성을 증명하듯 <세한도>는 긴 발문을 달고 유리 진열장 속에 누워있다. 花鳥圖라면 모를

까 내려다보아야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 파리에서 본 <모나리자의 미소>가 떠오른다. 긴 대기시간 때문에 다만 謁見을 하고나니 감상 보다는 모나리자가 몸살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어디서든 스타는 평범한 대우를 선택할 자유가 없나 보다.

나무 네 그루, 집 한 채, 마른 들판뿐이다. ‘까칠한 마른 붓질과 고담한 필선으로 이루어진, 간략한 구성과 여백의 미가 뛰어난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는 것 치고는 오히려 좀 횡한 느낌이다. 제주도로 유배 간 추사의 심리적 추위를 나타낸 것이라한다. 추사가 쓴 표제와 발문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조세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멀리 만이 보이는 강가의 풍경>





피에르 앙리 드 발랑시엔, <비 오는 네미 호수>




김정희, <세한도>

약간 등그스름한 예서체에서는 추사의 정감어린 마음이, 반듯한 해서체의 발문에서는 굳은 기운이 느껴진다. 한국 최고라는 추사의 글씨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長毋相忘)’ 인장까지 더해 ‘書畫一致’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풍경화인데도 이번의 두 전시회에서 추구하는 바는 이리 다르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서양화는 풍성한 잎을 달았고 <세한도>는 앙상한 겨울나무이다. 서양화가 색으로 화가의 느낌을 표현했다면 추사는 간결하고도 섬세한 선으로 마음을 그렸다. 동양화는 畫題가 있어 정신을 표출하기 쉬운지도 모른다.

나무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새싹은 생동감을, 여름은 풍성함을, 단풍은 화려함을 선사한다.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잎을 떨근 겨울나무를 나는 가장 사랑한다. 裸木의 가지는 눈을 찌를 듯 예리하나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애뜻해진다. 마른 몸이 에워싸고 있는 수맥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나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이다. 푸른 하늘은 동양화의 여백 같다. 예술은 이런 환상적인 조화에서 탄생하는 게 아닐까?

잘 된 그림은 한편의 시 같고, 좋은 시를 읽으면 그림 한 폭이 떠오른다. 박물관에서 나는 그림을 보며 시를 만났다. 섬광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니 혹시 그림 앞에서 부르르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 그냥 지나쳐 주기를 바란다. 시와 조우하는 接神의 행위를 일 뿐이니. 

## 同鄉의 금동불

국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延嘉7年銘 금동불[국보 119호]을 만난 것은 필자에게 숙명과도 같다. 필자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부산이지만 호적상 본적은 의령이다. 지금도 매년 별초를 다녀오는 곳 이니까 그곳이 실질적인 고향인 셈이다. 의령하면 '우순경 총기난동사건' 이 먼저 떠올랐던 시절, 저 유명한 연가명금동불이 1963년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동향 출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반갑고 자랑스러워, 마치 宿緣인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기능직으로 바뀌었지만, 고용직이라는 다소 불안정한 직함으로 국립박물관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관심도 온통 연가명금동불에 쏠려 있었다. 경복궁 시절(현 국립민속박물관), 연가명금동불은 불교조각실의 첫 장, 첫머리에 의연하게 전시되었다. 당시 불상이 전시되었던 벽부 진열장은 지금처럼 특수한 장치가 아니라 뒷면에서 손으로 문을 열어 청소도 하고 유물도 교체하는 식이었다. 조각에 담겨진 조형언어를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표면구조, 곧 질감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것은 시각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직접 만져보아야만 가능하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질감, 그 담대한 조형성만큼이나 묵중한 무게감, 그리고 사진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옆면의 날카로운 뾰침- 모두가 난생 처음 느꼈던 감각이었고, 또 박물관 직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가명금동불은 조각 기법과 주물이 다소 거친 편이며 광배의 불꽃무늬도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분방하다. 경남 의령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과 양식적 특징만을 고려한다면 신라 금동불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명문이 없었다면 아마도 '신라불상 특유의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 고구려 539년

단순성과 거친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 정도로 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배 뒷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이 불상은 己未年인 539년에 낙랑(평양?)의 동사(東寺, 혹은 평양 동쪽의 절?)에서 千佛像의 하나로 만들어져 신라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구려의 불상 양식이 멀리 신라까지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불상의 제작지 추정에서 출토지 보다 양식적 고찰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귀중한 교훈인 셈이다. 이 불상에 보이는 길쭉한 얼굴과 신체, 袍服式의 복장, 몸 좌우로 갈켜처럼 예리하게 뻗친 옷자락 표현방식, 通印의 수인 등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금동제단상(524)이나 일본의 후지이유린칸(藤井有鄰館) 소장 청동삼존불(522)과 같은 이른바 북위 '正光期(520~524)' 양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온몸을 감싼 두터운 가사의 옷주름은 선이 아니라 대칼로 잘라낸 듯 담대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측면관을 보면 세 가닥으로 날카롭게 뻗친 옷자락에는 강렬한 힘이 느껴진다. 반면 중국 북위의 금동불은 지나치리만큼 세부표현이 치밀하고 장식성이 강하여 치마와 가사의 끝자락은 작은 고리를 촘촘히 엮어놓은 듯한 잔물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중국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연가명금동불에서 가사와 치마 끝자락의 잔물결 옷주름은 단지 두세 가닥으로 지극히 단순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중국 불상에서는 볼 수 없다. 담대성과 두터운 양감은 고구려 미술 양식의 특징을 대변하는 듯하다. 더욱이 광배는 이글거리는 불꽃무늬를 얹은 선각으로 새겨 불상 자체의 양감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끝이 살짝 치켜진 대좌의 연꽃잎은 건드리면 툭 하고 터질 듯 탄력성이 넘친다. 이는 곧 날카로움과 動勢가 어우러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 곧 몸 속에서 발산하는 氣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마치 고구려 미술의 상승하는 기세가 느껴지는 듯하다. 연가명금동불의 조형적 특징을 통하여 하나의 조각 양식을 수용할 때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화시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정서와 미감에 어울리는 조형미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외래 양식을 모방할 때 일어나는 경직된 선이나 양감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오직 자신감 넘치는 활달한 선과 기세가 넘칠 뿐이다.

동북공정 때문인지 TV드라마에도 온통 고구려 일색이다. 오직 전도의 일념으로 어느 이름 모를 고구려 스님에 의해 신라에 전래된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은 고구려인의 기상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한국적인 정서와 미감의 응결체나 다름없다. (牛岩山) ㉠



金銅祭壇像 (북위 524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경주에서 만난 나의 부처님

이 속 희 | 회원

차창 밖으로 낮익은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구, 경산, 영천, 그리고 경주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피어오르는 그리움과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시택이 있어서 매년 몇 차례씩 경주를 다녀가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훌훌 털고 어디로 갈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남산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큰 맘 먹고 나선 이번 답사는 경주에서 가지는 나만의 귀중한 시간이다.

답사는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南山里寺址 삼층 석탑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웅전 앞의 넓은 마당이 아닌 민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탑 7.04m, 서탑 5.55m였지만 실제 보다 훨씬 커 보였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서 쌍탑과는 다른 橫搏石塔이다. 통일신라 때는 대체로 동일한 양식을 가지는데, 이 석탑들은 대칭이 깨뜨려짐으로서 색다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서탑 삼층 기단에 새겨진 팔부중의 모습이 특이했다.

염불사지 폐탑을 지나고 힘든 산행으로 지쳐갈 무렵, 우거진 숲 사이로 하늘이 보이더니 일곱 분의 부처님이 우리를 맞았다. 바로 칠불암의 부처님들이었다. 수업시간에 화면으로만 보았는데 실제 모습은 매우 크고 장대했다. 높이가 426cm나 되는 큰 바위면에 딱 차게 삼존불을 부조했다. 그 중 본존불은 260cm 높이의 좌상으로 넓은 어깨와 건장한 가슴 그리고 가는 허리의 당당한 모습으로 힘이 넘쳐보였다. 풍만한 얼굴, 단아한 입매에 번지는 자비로운 미소와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모습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다 어루만져 줄 것 같았다. 고단한 삶을 이고 깊은 골짜기를 올라와 부처님 앞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을 수많은 중생들 중 한 사람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빌며 합장했다.

가파른 바위 길을 기어올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의 신선암 마애불 앞에 섰다. 무릎까지 흘러내리는 천의의 주름과 발아래 펼쳐진 선명한 구름이 어우러져 금방 하강한 듯 마애불은 생동감이 넘쳤다. 얼굴은 도톰해서 약간 근엄해 보이기도 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가늘게 뜬 긴 눈과 금방이라도 미소를 지을 듯한 입매에 자비가 넘쳤다. 깊고도 높은 산중이라 외로울까 걱정 되었지만 짧은 만남을 가벼운 입맞춤으로 끝내야 했다.

남산은 볼 것이 많아 걸음을 빨리해야 하는 데도 석불 앞에만 서면 마냥 머물고 싶어졌다. 특히 부처골의 감실불상이 더 그러했다. 은은한 미소가 가득한 둥근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고 두 손을 소매 속에 넣은 채 커다란 바위를 파서 만든 감실 속에 앉아있

다. 가까이 다가가면 긴 이야기를 해주실 것처럼 따뜻하고 푸근해 보인다.

부처바위 磨崖佛彫像群 앞에 다다르자 아렸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졌다. 10m가 넘는 거대한 바위의 네 면에 부처, 보살, 스님, 비천, 신장, 탑, 동물, 식물 등이 여백 없이 조각되어 있다. 불국토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황룡사 9층탑의 소재로 추측되는 북면바위 위의 9층탑 그림은 전체적인 모양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상륜부의 노반과 보륜 그리고 지붕 끝의 풍경까지도 묘사되어 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풀어주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방곡의 拜里 삼존불상을 만나는 것으로 답사를 시작하였다. 이 세 석불은 남산 기슭에 흩어져 누워 있던 것을 1923년에 지금의 자리에 세운 것이라 한다. 배리 삼존불은 부푼 뺨과 꼭 다문 입가의 장난스런 미소가 압권이다. 어린이 같은 체구이지만 정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워있는 경애왕릉으로 왔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찬 숲을 걸어가면 마치 먼 옛날 신라 시대에 닿을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리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매듭을 어깨에서 무릎 아래까지 늘어뜨린 석조여래좌상을 보았다. 북쪽 언덕의 뾰족한 기둥 바위들 중에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마애관음보살상이 있다. 온화한 미소, 붉은 입술 그리고 통통한 손가락 발가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슬쩍 만져 보았다. 관음보살의 온기가 내 몸에 스며들었다.

넒따란 바위를 캔버스인 양 앞쪽과 뒤쪽 바위에 선각으로 새긴 육존불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신라 불교 회화의 단면을 보여주

고 있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큰 절벽 바위가 있다. 중앙의 자연적인 가로 금을 대좌로 삼아 지름이 2.5m나 되는 연꽃 위에 부처님을 앉혀 놓았다. 길고 넓적한 코와 크고 두툼한 입술, 조금은 순박하게 보이는 눈을 가진 부처님이었다. 경주의 어느 거리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인심 좋은 이웃 아저씨 같았다. 이렇듯 소박하게 조각한 이유는 부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우리 조상들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 밖에도 얼굴 아랫부분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석굴암의 본존불을 연상케 하는 삼릉골 석조여래좌상과 거대한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해서 신라인들의 바위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상선암의 마애석가여래 대불좌상은 인상 깊었다. 세련된 선의 흐름이 깔끔한 葺長寺址 마애여래좌상과 우리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삼륜대좌위의 머리 없는 석불 등도 마음에 남는다. 경주 남산의 불상과 탑들은 신라인들의 모습이며 신앙이며 삶이었다. 그들의 삶이 내려와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으며 또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ㄹ



# 사라져 가는 것은 아름답다

이 종 열 | 특설강좌 수강생

답사를 하고자 찾아간 익산 미륵사지 앞에는 6월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옛 탑은 보이지 않고 파란 잔디밭 너머로 하얀 9층탑이 산뜻하게 자리 잡고 있다. 東塔 자리에 새 탑을 축조했고, 1400여년을 견뎌온 西塔은 자연붕괴가 우려되는데다 시멘트로 수리한 것이 흉물스러워 복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니 서쪽에 창고처럼 높다란 건물이 있고 그 외벽에 무너지던 석탑 그림이 그려져 있다. 건물 안에 들어서니 현대식 장비로 탑을 해체하는 중이다, 주변에는 수많은 돌들이 도열해 있는 것이 보였다. 각각의 돌은 이름, 층수, 위치, 방향 등을 치밀하게 기록한 표식을 주렁주렁 달고 제자리 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층부는 모두 해체되고, 1층 옥개석과 기단 부분만 제 모습이다. 그나마 隅柱 옆에 웅크리고 앉아 미구에 다가올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석인상을 보니 잊었던 옛 친구처럼 반갑다.

장교로 논산훈련소에서 복무하던 1970년대 초 겨울 어느 날, 金馬에서 K형을 만나 미륵사지에 갔었다. 험벗은 산기슭 잡초 밭에 해골처럼 버티고 서있는 잿빛 석탑. 세 귀퉁이는 붕괴되었고 거친 바위로 받혀진 기단 위로 일제가 땀질했다는 시멘트벽이 혐오스럽게 탑신을 대신하던 모습이

그때의 기억이다. K형은 익산의 부농 출신으로 서울의 고교에 유학 중, 4·19의거 선봉에 섰다가 옆구리 관통상을 입었다. 의협심이 남달랐던 그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했고 제대 후 취업한 직장에서 나와 동료가 되었다. 금마읍내 어느 주막에서 검붉은 황토 평원을 내다보며 “익산은 말이여. 이래도 마한, 백제, 후백제, 세 왕국이 도읍했던 요지여. 계백이 이 황산벌에서 마지막 결전에 나선 것도 금마일대의 곡창을 지키려 했던 거여. 그때 만경들은 빨이었고 군산은 거의 섬이었어.” 라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백제의 오기를 보았다. 그날 밤 숙소인 연무대로 돌아오며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 <오동꽃>을 읊조리던 차창에는 미륵산 허리에 걸린 겨울달이 싸늘했다.

담 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한두 개 소리 없이 내려지는 오동(梧桐)꽃을  
가라다 발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

그 후 익산의 황토별관을 회상할 때면 K형이 떠올랐고, 라만차 황토 벌에서 풍차를 향해 돌진하던 돈키호테가 포개졌다. 그는 때로는 계백장군처럼, 때로는 돈키호테처럼 사회 부조리 앞에

몸을 아낄 줄을 모르던 의로운 선배였다. 미륵사 석탑은 백제의 분노였고, 텅 빈 절터에 흩어진 역사의 잔해는 복원될 수 없는 윤회의 한으로 각인되었다. 엄숙하면서도 불완전한 석탑의 세련미는 쓰러져가는 것이었기에 그리움을 더해갔다.

서탑을 복원하고 나아가 중앙의 목탑과 3개의 金堂까지, 10만평 사찰을 모두 복원하여 웅장했던 백제의 오기를 과시해보는 것도 좋겠지. 천 년 전에 유명했던 黃藤, 금마의 화강석은 지금도 풍부하니 돈만 들이면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새로 만든 동탑의 과학적인 비례를 보니 어쩐지 인조 석같이 생경한 느낌이다. 천년 세월 속에 탑신 대부분은 누구네 집 주춧돌, 빨랫돌이 되거나 붓머리 방축돌이 되어 사라진 오늘, 기계로 깎은 새 돌로 자리를 메워본들 옛 탑이 될 수 있을까. 발전된 현대보존과학으로 기술문제는 그렇다 해도 미륵불을 모시는 신앙심까지 복원할 수 있을까. 이끼 낀 옛 돌에 새 돌을 끼워 넣는 복원은 오히려 다시는 옛 모습을 볼 수 없게 할 것만 같다. 풍화하는 석탑, 사람이 없는 가을의 잡초와 고살길, 이끼 낀 당간지주, 삭풍에 밀리는 겨울나무, 미륵산 능선

을 돌아가는 저녁달……. 넘어가는 석양은 작열하던 대낮이 있었기에 애뜻하듯이, 폐허는 더 이상 패배의 영상이 아니고 찬란한 과거를 불러오는 파노라마로 이어진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가 무너진 그대로이고, 구 로마의 유적도 그렇다.

금마는 역사적으로 강한 자주성을 가졌다. 백제에 복속된 5-6세기까지도 이 일대에는 馬韓양식의 고분이 출토된다. 무왕의 꿈이 무산된 백제 패망 이후에도 저항이 그치지 않자 신라는 전주를 지역 중심으로 육성했고(751년), 이후로 금마는 퇴락한 역사가 되고 말았다. 언제나 꿈을 좇아 살던 K형도 본인의 뜻을 펴지 못한 채 이제는 고인이 되어 청산에 유택을 마련하였다.

세월이 흐르면 만물은 자연으로 환원된다. 하늘로 뻗던 나뭇잎도 가을이 오면 대지의 토양으로 스며들어 다시 잎을 키워내는 한줌의 거름이 된다. 폐허의 매력은 인간이 만든 것이 결국에는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落葉歸根의 섭리에 자신을 겹쳐보는데 있다. 풍화와 지진으로 붕괴된 탑을 복원하는 것도 56억년 후에 하강할 미륵불에게 한갓 刹那에 불과하지 않을까. **ㄹ**



## 아름다운 두 번째 만남

이 희 숙 | 회원

지난 봄 가족들과 함께 榮州 浮石寺로 여행을 갔다. 5월의 新綠은 싱그러웠고, 양지 바른 과수원에 피어 있는 하얀 사과꽃에서는 상큼한 사과향이 느껴지는 듯 했다. 짧은 여정이 못내 아쉬워 사과가 빨갭게 익어가는 가을에 다시 와보고 싶다고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그런데 이번 박물관 답사가 부석사여서 뜻하지 않게 나의 작은 바람이 이루어졌다. 살다보면 간절히 바라던 일은 오히려 더디 풀리고, 스치듯 가슴에 품었던 일은 쉬이 실현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가보다. 부석사와의 아름다운 두 번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먼저는 봄기운에 들떠 부석사에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사색하며 차분히 둘러보기로 하였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에 義湘大師가 창건한 신라 화엄종의 종찰이다. 국보 5점과 보물 4점 등,

중요 문화재가 많은 절로도 유명하다. 산 아랫자락의 일주문을 지나 운치 있는 은행나무 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천왕문, 범종각을 거쳐 안양루에 이른다. 안양루에서 내려다 본 백두대간의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은 마치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같다. 무한하고 광활한 바다를 내려다 보면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나마 빗장을 벗는다. 눈앞의 장관이 눈을 빼앗는다. '이 광경을 한번 보면 속세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6개월 동안은 거뜰히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다하니 모두들 웃는다. 그래서 안양루를 거쳐 더 좋은 이상의 세계를 뜻하는 무량수전에 이르도록 하였나보다.

無量壽殿[국보 18호]은 主佛殿으로 洪武 9年(1376)에 圓融國師가 중수한 것이라고 한다. 배흘림이 뚜렷한 기둥을 세워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집을 구성하고 내부에는 西壁의 중앙에 佛壇을 꾸며 阿彌陀佛을 봉안하였다. 불상의 坐向과 건물의 방향이 다르게 조성된 점이 특이하다. 지난 봄에 왔을 때는 배흘림기둥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塑造如來坐像[국보 45호]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기 불상으로 추정되며 塑造佛이라 더욱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 보상화 무늬가 화려하게 투각된 木造光







백는 어찌나 찬란 하던지 법당 안이 금빛으로 가득한 듯했다.

무량수전 앞 石燈[국보 17호]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팔각석 등이다. 불발기집은 팔각으로 하여 사방으로 불빛 창

을 열고 나머지 면에는 四天王像을 조각하였다. 현존하는 석등 중 가장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을 듣자 석조미술시간에 배웠던 ‘돌의 특성’이 떠올랐다. 돌에는 언제나 ‘오차’가 있다고 했다. 제아무리 뛰어난 석공이라도 돌의 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잘라지지 않아 오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돌의 차가운 속성 이면에는 오차를 인정해야만 하는 한계와 너그러움이 존재한다. 마치 우리네 인생사도 자로 잰 듯 살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본의 아니게 틈이 생기는 것처럼. 나는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치열하게 고뇌했던 석공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石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풍수사상에 근거하여 풍광 좋은 곳에 설치하였다는 浮石寺 三層石塔[보물 249호]은 절 마당을 벗어나 무량수전의 동편 언덕에 서 있다. 석탑을 지나 산길을 올라 의상대사의 眞影이 있는 祖師堂[국보 19호]으로 갔다. 당시엔 은유나 상징을 싫어해서 사실에 가까운 초상화가 발달했다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주심포식 맞배집으로, 이 건물이 건축학적으로 주목되는 이유는 공포 첨차의 폭과 높이의 비례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건축물의 첨차비례와 거의 비슷하여 옛 법식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다. 조사당 앞에는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것이 살아 나무가 되었다는 선비화가 있다. 현재는 전설과 함께 촘촘한 철망 안에 보호되어 있다. 퇴계 선생은 조사당 앞에서 있는 선비화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고 한다.

옥같이 빼어난 줄기 절문을 비겼는데  
석장이 꽃부리로 화하였다고 스님이 일러 주네  
지팡이 끝에 원래 조계수가 있어  
비와 이슬의 은혜는 조금도 입지 않았네

擢玉森森倚寺門  
僧言卓錫化靈根  
杖頭自有曹溪水  
不借乾坤雨露恩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를 흠모한 여인 선묘가 용으로 변해 이곳까지 따라와서 줄곧 의상대사를 보호하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단다. 나는 선묘낭자의 애뜻한 설화를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채 귀갓길에 올랐다.

언제나 답사 후에 찾아드는 아쉬움은 자연스레 다음 답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에도 그토록 아름답다던 부석사의 落照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컸나보다. 나는 어느새 부석사와의 세 번째의 만남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니 말이다. 

# 박물관과 함께 한 세월

윤 정 희 | 회원


내 인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박물관과의 인연은 올해로 25년이 된다. 처음 강의를 들은 것이 1980년이니 벌써 아득한 세월이 흘렀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려야 할 외교관 가족, 중·고 역사 교사들, 文化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수강생으로 뽑았다. 학력과 연령 제한까지 엄격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어휘 자체가 생소했던 그 때로서는 선망의 대상이던 특설강좌였다. 강의도 대학원 수준이었고 지명도가 높았던 많은 교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다. 재학시절 고전을 강의하셨던 한학의 대가이신 고 임창순 선생님, 민속학자이신 임동권 선생님을 다시 뵈었을 때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간마다 다른 내용의 강의를 조금씩만 맛보았던 博友들은 강의가 끝났을 때 계속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전통문화 학습회」란 명칭으로 강좌를 만들고 교수님을 초빙해서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박물관 강당에 모이곤 했다. 오랜만에 앉아보는 강의실, 필기하는 학창 시절의 느낌, 오후의 나른한 시간임에도 우리 나이 든 학생들은 감동스러울 만치 초롱초롱한 모습이었다.

공부하는 즐거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대학박물관 순례, 그리고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답사 등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어려 한참 생활이 바쁘고 힘든 때였지만 오랜만에 접하는 知的 만족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였다. 가족들도 내 「博物館行」에 적극 지원해 주었다. 20년간 살림만 하던 엄마가 공부를 할 뿐 아니라, 때때로 박물관에서 초청장과 신문이 오는 것 모두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웠다. 훗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으쓱한 기분까지 들었다. 잡다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돌담길을 걷는 일은 큰 즐거움의 하나였으며 계절마다 고궁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궁 내에 있었던 「다원」은 사면이 통유리로 장식된 아주 낭만적인 곳으로 간간이 들러서 답소하던 그리운 찾집이었다.



우리는 자주 전시실을 찾았다. 보면 볼수록 우리 문화의 우수성, 지혜로움, 게다가 과학성까지 엿볼 수 있어 전시실 관람을 할 때면 늘 시간가는 줄 몰랐다. 전통문화를 바로 알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자원봉사교육을 받아 박물관 전시실 안내를 했다. 한 달에 한번 가는 일요답사는 학예사의 설명을 듣고, 필기하고, 사진 찍으며, 가는 길 오는 길이 소풍가는 초등학생 마냥 늘 들뜨고 즐거웠다. 겨울 답사에서 친구들과 끓여 먹었던 김치떡국은 별미 중의 별미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40대에 만났던 정다운 博友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미술사 강의를 듣고 있다.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많은 작품을 시간마다 감상하고 설명 들으면서 우리들의 소중한 인연을 새삼스럽게 느끼곤 한다.

작년 가을 경복궁 시대의 박물관이 마감을 하고 새로운 용산 시대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은 작품 감상에 많은 도움을 주어 전시실을 둘러보고 나올 때마다 가슴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린이 박물관이며 극장「용」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주 매력적이다. 정명훈씨의 지휘로 진행되었던 음악회는 잔잔한 선율 속에 매료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도 다양한 계층의 관람자들이 박물관 광장을 메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실마다 가득 넘치는 것을 볼 때, 국립중앙박물관은 온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와 숨결을 고스란히 품어주는 어머니 같다. 더 욕심을 부려 보면 박물관 주변에도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개인 화랑이며 크고 작은 전시회, 인사동 같은 아기자기한 거리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멋있고 맛있는 찻집, 음식점 들……. 좀 더 세월이 흐르면 박물관 경내의 경지도 어우러질 것이고, 이 곳 용산이 우리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리라. 

# 나눔에 대한 소중한 추억

惠田 宋成文 선생 문화재 기증

장 상 훈 |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2003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에서 문화재 기증업무를 담당하던 필자는 한 노신사의 방문을 받았다. 문화재 기증 절차를 문의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필요한 서식을 드리고 절차를 안내해 드렸다. 이 노신사는 앞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종종히 박물관을 떠났다. 그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였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박물관을 찾은 노신사의 손에는 국보 4건, 보물 22건 등의 物目이 빼곡히 적혀 있는 기증희망원이 들려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일을 담당할지 채 반년도 안 된 필자로서는 흥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신사는 송성문 선생이 소장하던 문화재 일체를 기증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그 일을 대신 맡았다고 밝혔다.

기증 문화재의 물목에 놀라고 ‘송성문’이라는 성함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성문종합영어>의 필자로 유명한 바로 그 분이 아닌가. 70-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이가 드물 정도였고, 실제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순간 출판으로 얻은 이윤을 사회에 이렇게 돌려주시는구나 하는 진한 감동이 밀려왔고, 그 책으로 공부를 했다는 어줍지 않은 所懷도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정신을 가다듬고 기증 대상품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국보 246호 大寶續經, 국보 273호 瑜伽師地論, 국보 271호 顯揚聖教論, 보물 1125호 父母恩重經, 보물 1140호 妙法蓮華經, 보물 1281호 資治通鑑, 보물, 보물, 보물, …… 총 45건 101점. 뭐라 말을 잇기 어려웠다. 한 눈에 보기에도 우리나라 고인쇄 문화재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긴 목록이었다.

절차를 상의한 노신사는 또 훌쩍 박물관을 떠났다.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 분은 고인쇄 문화재 전문가 田文 선생이었다. 전문 선생은 송 선생과 교분을 나누며 인쇄 문화재의 수집과 관리를 도운 분이였다. 박물관의 윗분들을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전문 선생은 굳이 그럴 것 있느냐는 답을 남겼다. 선생을 배웅하고 흥분된 마음을 억누르며 지휘계통을 따라 기증 희망 건을 보고했다. 박물관은 일순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어렵사리 흥분을 가라앉힌 실무 팀은 2003년 3월 인수 작업을 진행했다.



대보적경(국보 246호, 11세기)




유가사지론 (국보 273호, 11세기)

기증자 측은 대상품을 서울 역삼동의 성문출판사에 옮겨 두어 인수하도록 하였다. 전문 선생과 송 선생의 장남 송철씨가 작업을 도와주셨다. 기쁜 와중에도 의아스러운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다. 평생 정이 들 대로 들어 있는 소장품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선생이 안계시다는 사실이었다. 혹 와병 중이신가 넌지시 여쭙어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짤막한 대답뿐이었다. 기증문화재 특별전 때에는 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민훈장모란장 수여 행사(2003. 6. 12), 송성문 선생 기증 문화재 특별전(2003. 10. 7 ~ 11. 2) 개막식 등의 공식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뵈 기회는 없었다. 자신의 공을 결코 드러내려 하지 않는 마음을 알기에 덕으로 찾아뵈 수도 없었다. 선생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행사였기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뜻에 비하면 부질없는 생각이었으리라. 기증문화재 특별전 도록을 마련하여 증정하려는 직원에게 전해진 전언에는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었다. “두어 권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성문 선생은 주로 고인쇄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1950-60년대 전란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 귀중한 고인쇄물이 제지공장에서 폐지로 파기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고인쇄 문화재의 발굴과 구입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모두 26건에 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게 된 것은 송성문 선생과 전문 선생의 노력으로 얻어진 일이었다. 즉 국가지정문화재를 바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구입하여 가치를 확인하고 알리는 작업을 통해 국가의 지정을 받은 것이다.

기증 문화재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관과 기증관에 전시되어, 우리 민족이 도달했던 높은 수준의 인쇄문화를 알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지정문화재를 26건이나 기증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있기 어려운 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필자가, 또 우리 박물관이 받은 더 중요한 것은 선생의 고귀한 나눔의 정신이다. 또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숭고한 정신을 체험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송성문 선생님 고맙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 후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 유물기증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위창 오세창 상형고문  
기원 유한지 예서  
소정 변관식 백납8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 ■ 학술연구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연구활동을 돕는다.

### ■ 사업지원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발굴조사 등을 지원한다.



##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 특설강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목·금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을 진행한다.

### ■ 연구강좌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하였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 고적답사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국외답사를 운영한다.

### ■ 학술강연회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 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 자원봉사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알립니다

한국박물관회의 명칭이 국립중앙박물관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 吳志哲

理 事 | 金紅男 · 朴仙卿 · 朴亨植 · 申硯均  
安聖基 · 李健茂 · 李斗植 · 李仁洙  
田永采 · 鄭明勳 · 池健吉 · 崔科南

監 事 | 金義炯 ·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특별 · 영구회원  
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  
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  
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 법인

#### ■금관회원

팬택&큐리텔 박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 ■은관회원

(주)종합전기 金鍾漢

### >> 개인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 삼성물산 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珷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이름지기 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이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삼표산업  
李美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李明姬  
朴仙卿  
李起雄  
辛永茂  
李仁洙  
辛炳讚  
朴載蓮  
李鈴子  
柳芳熙  
朴海春  
金宗學  
都炯泰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洪錫肇 전 광주고검장  
李興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惠蓮 대학강사  
崔科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健茂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韓載京  
柳憲辰 (주)씨큐텍  
李殷子  
鄭叔熹

#### 책을 만들면서

찬 바람이 분다.  
겨울 채비를 한다. 비우고 떨구는.....  
다시 가벼워질 수 있어 기쁘다.(진)

삶이 유구한듯 하지만  
가끔 이음매가 덜컥거리기도 한다.  
수옥, 해리, 미희, 나, 그리고 애경  
마주잡은 손이 있어  
진땀나는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 다섯은 어쩐지 좀 끈적끈적하다.(河)

가을의 밤은  
녹음된 범종소리를 들으며 보냈나보다.  
영혼 깊은 곳을 돌아 나오는 듯한 깊은 울림  
아득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천...  
그 소리, 산사에서 맞이하고 싶은 계절이다.(정)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 여유로움  
웬지 미안함이.....(리)

찬바람이 스며드는데  
따스한 손길로  
녹이고 녹이면  
답답한 가슴이 녹아내릴까(水)

잘나왔다.  
직지사 다녀오던 길  
아찔했던 순간을 벗어나니  
우리는 서로를 더욱  
부여잡고 있었다(愛)

발행일 | 2006년 12월 1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 · 정혜리 · 조애경 · 진수옥 · 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동종으로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만들어졌다. 경주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원형의 신라시대 범종이다. 현존하는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아름답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 사회교육 · 자원봉사 ·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68-6, Yongsan-dong 6-ga,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